

한국의 엘리트 '서울법대' 출신의 집단 초상화

「진리는 나의 빛」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송우혜

작가

자연에는 실로 여러 모습들이 있다. 책의 세상 또한 그러하다. 청정하게 고이 자란 한 포기 蘭 같은 책이 있는가 하면, 질풍노도 같은 인간정신의 세찬 분출이 활자들을 마구 뒤 흔들고 있는 책도 있다. 허세로 가득찬 허풍 장이의 몸짓 같은 책도 있고, 자폐증 환자의 혼잣소리 같은 책도 있다.

때로는 그런 여러가지 요소들을 한 권의 책 속에 함께 지니고 있는 책을 만날 때도 있다. 서울법대 동창들의 수상록 1, 2권인 「진리는 나의 빛」(經世院)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두 권의 책이 주는 인상이 바로 그렇게 복잡적이다.

이 책들은 우선 재미있다. 읽어가노라면 '수상록'이라기보다 한 폭의 거대한 모자이크화를 대하는 것 같다.

집필자 176명. 모두 자기 위치에서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갖가지 목소리로 쏟아놓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 얼키고 설켜서 다채로운 구도와 색깔로 이루어진 한 폭의 커다란 그림을 이루고 있다. 이 그림의 재료는 다양하다. 따뜻한 추억, 치열함, 그리움, 기쁨, 보람, 고마움..., 그런 것들과 함께 회한, 원망, 딱한 자기과시까지 끼어들어 강렬한 형상의 모자이크를 이룬다.

서울법대는 조선왕조말인 1895년에 「법관양성소」가 세워진 때로부터 전통의 연원을 계산하여 1995년에 개교 1백주년을 맞는다고 한다. 그간 졸업생만도 1만여명. 그래서 자축하는 뜻으로 경성세대 5회 졸업생인 팔십대의 노변호사로부터 삼십대 초반의 젊은 학자에 이르기까지, 역대 졸업생들의 수상록을 모아 묶은 것이 위의 두 책이다.

개교 1백주년이라 함은 충분히 자축할 만한 경사이다. 이른바 '신학문'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 사회에서 1백년 전통의 교육기관은 손꼽을 정도로 적다. 그런 중에서도 특히 '서울법대'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은 특수하다. 서울법대가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차지해온 위상이 그러하고, 배출해낸 인사들이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자리잡고 나름으로 기여해온 힘이나 끼친 영향력의 비중을 보아서도 그러하다.

개교 1백주년 맞아 펴낸 졸업생들의 수상록

“1만 명이 넘는 동창들에게 모두 원고청탁을 할 수가 없어 각 期別 동기회장들에게 열



분씩 추천을 의뢰하여 그분들에게 글을 받아” 묶은 것이라는 이 책들은, 과연 한국 최고의 명문이라는 '서울법대' 출신들의 회고담이다. 글의 성격은 학창시절의 회고와 졸업 뒤의 인생경험인 바, 책의 편제상 대부분 짧은 글인 것이 유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의 의식이나 삶의 음영이 역력하게 드러나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 책들이 지닌 훌륭한 덕목의 하나는, 이 책들이 수량이 아주 풍부한 우물이라는 점이다. 소용되는 방향과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물을 길는 이의 능력에 따라서 이 우물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지식의 물을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우선 교육사적인, 그리고 풍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책은 매우 흥미롭고도 소중한 증언집이다. 당대를 산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지난 시대의 대학과 대학인의 모습들이 여기에 참으로 생생한 육성으로 재생되고 있다.

경성세대 시절, 일인 교수들에게서 강의받던 모습과 민족적인 갈등, 그리고 기이한 당시의 학풍들... 본과에서는 시험시간에 담배 피우며 답안 작성하는 것을 허용했다든지, 예과생들이 별나게 웃을 짓어 입고 머리카락은 어지럽게 흐트리고 다니던 모습이며, “스톰(storm)을 한다”면서 거리에서 원을 지어 마구 춤추며 노래부르던 풍습들이 등장한다.

갖가지의 목소리로 쏟아놓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로 얼키고 설켜서 다채로운 구도와 색깔로 이루어진 한 폭의 커다란 그림을 이루고 있다. 이 그림의 재료는 다양하다. 따뜻한 추억, 치열함, 그리움, 기쁨, 보람, 고마움..., 그런 것들과 함께 회한, 원망, 딱한 자기과시까지 끼어들어 강렬한 형상의 모자이크를 이룬다.

해방 전후시대의 첨예했던 이데올로기의 계절, 좌우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대학이 방황하던 그 살벌한 모습도 여러가지 아릿한 에피소드들 속에 등장한다.

이 책들은 우리 시대의 현대사의 이면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지니고 있다. 집필자 중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주요한 매듭에 해당하는 사건에 직접 관련되었던 인사들이 털어놓은 증언은 소중하다. 우리 시대를 담은 기록화들을 좀더 선명한 형상으로 보충할 섬세한 붓의 기능을 할 만하다.

물론 그런 용도와 전혀 무관한 글도 있다. 치열한 지식욕에 불타던 젊은이들의 청결한 초상들이 있는가 하면, 지난날의 따뜻했던 추억들을 회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는 겸허한 문장도 있다. 그런 글들은 실용성과 상관없이 읽는이의 마음을 봄비처럼 적신다. 특히 우리 모두 한때는 찬란한 청춘이었던 것. 그래서 읽는이마저 “역시 청춘은 아름답다와라!”라는 찬탄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여러 사람이 털어놓은 대학시절의 추억담이 주는 애뜻함 또한 아주 별미이다.

영광의 이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도...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이 책들을 호의만 가지고 보았을 때 나오는 덕담들이다.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보면, 지금까지와는 색깔이 다른 평가 역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책들이기도 하다.

그런 점 또한 설립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장장 1백년 동안이나 가장 세속적인 의미에서 출세의 지름길 노릇을 한 교육기관 동창들의 회고록다운 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일그러진 모습 또한 책의 행간에 들어 있다. 한국인들 중에서 소질로나 두뇌로나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속한다고 자부하는 그들, 그들의 회고담과 경력을 냉정하게 관찰하면 그들이 누린 영광의 이면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또한 장님의 눈에도 보일만치 뚜렷하게 드러난다.

일본인들의 식민지 교육의 우등생 노릇을 한 행적들. 굴절 많은 우리 현대사의 암흑기에 부당한 권력의 수호인과 참모 또는 하수인 노릇을 한 자취들. 같은 동문들끼리 서로 편리를 봐주며 사회의 상층부를 구성하는 집단이기주의의 일그러진 형상들... 그런 것들이 점점이 그 자랑스러운 회고담에 배음으로 깔려 있다. 아니, 먼 과거사는 말할 것 없다. 바로 최근에 국민의 지탄을 받은 사건 관련자로 매스컴에 등장한 인물 또한 버젓이 지면을 차지하고 「모교 서울법대」를 찬양하는 함창에 목소리를 합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점까지 생각할 때 읽는이의 마음은 착잡하다. 더구나 이 회고담들을 묶은 「진리는 나의 빛」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라는 그 찬연한 제목들을 볼 때, 더 그렇다. 일말의 아이러니와 함께 슬픔까지 느끼게 된다. 사람들이 보통 자신이 넉넉하게 지낸 것 보다는, 자신에게 아쉽고 결핍된 것을 더 절실하게 의식하고 더 큰 목소리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 그렇다.

그러나 그런 '빛과 그늘'의 논리가 어찌 서울법대 동창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리요. 크고 작고, 또는 보다 화려하고 덜하고... 등등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늘 우리들 인생 모두의 등을 관통하며 상처를 입히는 날카로운 창이 아니던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성서의 한 구절이다. 원하는 이는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바꿔 읽어도 무방하리라.

“참으로 우리는 모두 풀과 같은 인생...”

어쩐 일인가. 책을 덮으면서 그런 탄식이 떠오른다.